

# 朝鮮朝 道學의 본질과 그 歷史性

—太極개념을 중심으로—

崔 昌 圭  
(서울대학교)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朝鮮朝 道學의 歷史性 |
| II. 朝鮮朝 道學의 本質 | IV. 結 語          |

## I. 머리말

朝鮮朝 道學의 물결은 靜菴 趙光祖의 至治主義에서 힘차게 솟아 올랐다. 목숨까지 바친 趙光祖의 殉節 위에서 분출된 이 나라 道學의 本質은 한마디로 「以道爲一」이었다. 즉 文字 그대로 “도로써 큰 하나”를 이룬다는 韓國的 統體論이었으니 곧 우리들의 역사적인 總和論이었다.

여기서 道(以道)는 바로 韓國的 根本主義의 本體요 一(爲一)은 그대로 韓國的 大同主義를 알려주는 達用이다. 이때 道는 無形無臭의 가장 작은 體요, 大同의 一은 가장 큰 用이다. 가장 작은 體와 가장 큰 用의 만남 그것은 본래 저 「費而隱」등으로 표현되어온 儒學的 中 자리와도 통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一)이면서도 큰 하나(大)를” 의미하는 우리들의 「한열」정신을 통하여 그대로 한민족 고유의 思想本領으로 피어나왔다.

天與人 本乎一 天未嘗無其理於人 君與民 本乎一 君未嘗無其道於民 故聖人以天地之大 兆民之衆 爲一而已...<sup>1)</sup>

여기서 君과 民 그리고 天과 人은 道(理)를 통하여 그대로 하나(一)를 이룬다. 이때 하나(一)는 물론 큰 하나(大)다(天地之大 兆民之衆) 그리고 그 큰하나(大)를 바로 道(理)가 이끌어준다.

여기서 道를 통하여 실로 큰것을 창출하는 道學의 끝없는 생명은 확인된다. 한마디로 큰것을 이루는 저「爲一」은 그대로 완결의 논리(至善)요 조화의 정신(皇極)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朝鮮朝 道學의 本質을 太極개념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 이러한 道學이 어떠한 歷史性을 갖고 있으며 그 현재적 의의가 무엇인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 II. 朝鮮朝道學의 本質

朝鮮朝의 道學은 大我를 중심으로 하는 主體性的의 실현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것은 그대로「中」이라는 人極으로부터 출발하여「大中」이라는 皇極으로 무한히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主體적이 같은 大我에로의 무한한 확대에 바로 정신적으로는 事大의 본질이 있었다. 여기서 道學의 事大는 근본적으로 재평가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大我의 실현이라는 主體性的의 한 구현방식이였다.

이같은 道學의 政治文化는 栗谷의 경우 보다 높은 차원에서 명료하게 統合體系化되어 나왔으니 그 첫째가 바로 實의 개념이였다. 그것이 곧「天有實理 人有實心」이라는 實을 통한 天人的 만남이다. 栗谷이「天有實理 人有實心」이라고 하였을 때, 人間은 그대로 實을 통하여 天과 만나고, 이처럼 人間이 직접 天과 만날 때 인간은 그대로 道의 主體인 天을 실현하는 주체가 된다.

1) 「靜菴集」, 卷二, 謁聖試策.

天道는 實의 理요 人道는 實의 心이다. 天에는 이 實理가 있음으로 해서 化有의 功이 있고 人에는 實心이 있음으로써 感通의 效를 이룰 수 있다. 이때 實理 實心이라 하는 것은 곧 (至)誠을 가리키는 것이다.<sup>2)</sup>

靜菴의 경우, 本體로서의 天은 理로 그리고 主體로서의 人은 道로서 提示되었다(天理 人道). 이것을 栗谷에서는 實을 통하여 天人을 하나(一)로써 설명하니 그것이 저 큰 道, 즉 實의 道였다. 여기서 天道 人道는 함께 誠으로 만나게 된다.

여기서 栗谷의 實은 「天人合一」의 바로 그 實로 확인된다. 이때 이 實은 萬有를 포괄하는 높고 단일한 實存으로 高揚되니 그것이 바로 栗谷이 제시한 저 太極이었다.

無聲無臭 是易之實體兮 絕思慮於太極<sup>3)</sup>

여기서 實의 體(實體)로서 太極이 분명히 명시되고 있다. 天을 道의 本體, 地를 道의 具體, 人을 道의 主體로 본다면 太極은 곧 그 三才를 하나로 만나게 포괄하는 實體로 定立된 것이다.

여기서 栗谷의 道學은 실로 큰 것을 提示하고 있다.

우선 이 實(太極)을 통하여 韓國 道學은 有無를 초월하는 存(實存)의 세계를 형성해 주었다.

易의 근본자리인 無(無聲無臭)가 實(體)로 정립될 때 그때 無는 단순한 有에 대한 否定이 아니라 오히려 그 有를 낳아주는 有의 母體가 된다. 한마디로 有에 대한 否定으로서 無를 그대로 終結짓지를 않고 그것을 實을 통하여 窮極的 “있음”(有) 즉 存으로 영원히 긍정하고 있다.

여기서 萬有 모든 存在는, 有無로서 否定당하는 在의 상태에서 그 有無로서 否定할 수 없는 存의 경지로 초월한다. 實을 통한 영원한 存으로의 超越, 그것이 바로 太極을 통한 栗谷의 위대한 實存개념이

2) 「栗谷全書」, 拾遺 6, 試策.

3) 「栗谷全書」, 卷一, 理一分殊賦.

다. 그래서 栗谷의 太極(論)에는 근본적으로 有無를 止揚하는 實存의 논리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저 「無涵妙有 有著眞無」였다. 즉 有無를 초월한 妙有와 眞無의 만남이나. 이때 有(妙有)와 無(眞無)를, 和—시키는 것은 바로 저 太極의 實인 것이다. 여기서 眞無는 無極으로 단일화되지만 「妙有」는 實의 體인 太極과 연결되어 그 萬有의 用인 妙用으로 나타나고 있다.

無聲無臭 是易之實體兮…(太極), 一動一靜 是易之妙用兮 闔與闢其相因…<sup>4)</sup>

여기서 實의 體인 太極은 그 實의 用인 闔闢을 통하여 妙用으로써 살아나고 있다. (闔闢理論) 그것은 그대로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이란 孤雲의 玄妙之道와 相通一貫한다. 즉 “實(알맹이, 열)은 三教를 모두 包括하고, (그 안에서 三教가) 相接融化하여 同根叢生한다……”는 孤雲의 玄妙之道는 栗谷을 통하여, 「實」은 그 實의 體인 太極으로 그리고 玄妙의 「妙」는 「妙用」을 통하여 바로 太極의 用(즉 實의 用)으로 정립, 명시되고 있다. 그러니 栗谷의 實(太極)은 玄妙之道에서 연유하는 한국사상의 위대한 實存으로의 재확인이었다.

이같은 韓國的 實存개념은 첫째 “一切皆無”라 하여 道의 근본을 無로만 표현한 저 道教的 「無」와도 다르고 둘째 그 道의 근본을 “非有非無”라 하여 中道의 性空자리에서 설파한 佛敎的 「空」자리와도 다르며, 셋째 道를 天命之性으로 하여 인간의 中和자리에서만 直示한 儒敎的 「中」개념과도 다르니 곧 有無를 초월하여 萬有를 함께 포괄하는 實存개념이 바로 그것이었다.

한마디로 그 無도 空도 中도 모두 그 안에 함께 담고 發揚되는 궁극적 “있음”의 생명이 바로 栗谷의 實存이요 우리의 太極이었다.

이처럼 有無超越의 實體로서의 太極이기에 그 極은 道의 本體인 玄한 天으로 나타날 때에는 無極이요 主體인 人으로 나타날 때에는

4) 「栗谷全書」, 卷一, 理一分殊賦.

人極(즉 中)이며 天人이 함께 만나 萬有로 나타날 때에는 皇極(즉 大中)으로 각각 표현되어지게 된다.

이처럼 中(人極)이 大中(皇極)으로 확대될 수 있었기에 中庸에서 “中은 大本이요 和는 達道”라는 大와 達이 성립할 수 있었다. 이때 無極, 人極, 皇極을 하나로 만나게 함으로써 天人을 合一시키는 實(體)이 곧 栗谷의 太極이었다.<sup>5)</sup>

여기서 栗谷의 實은 天人合一의 實이다. 이 天人合一의 實을 통하여 바로 주체인 人은 實存을 얻게된다. 여기서 實體인 太極이 바로 主體인 人間을 實存의 主體로 향상시키고 있다.

### Ⅲ. 朝鮮朝 道學의 歷史性

이상과 같은 朝鮮朝의 道學이 士林의 政治文化로 정착되어질 때 기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歷史性이 있었다.

그 첫째는 道學이 출발할 때 近世 政治文化의 내용으로서 가지고 있던 實의 성격이요, 그 둘째는 개혁의지를 담은 新(革新)으로서의 역사적 생명이며 그 셋째는 士禍와 같은 不正과 투쟁하면서 잉태하고 있던 저 실천적인 正義로서의 공개념이었다.

麗末 鮮初의 정치변화에서 새로운 주체세력인 士林들은 지난날의 虛無寂滅한 佛敎文化에 대하여 새로운 性理學的 指導理念을 이미 實로써 내세웠다. 士林이란 政治單位는 이처럼 처음부터 實개념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하지만 이때 實에는 駙馬國이라는 中世末 對元關係를 청산하고 새로운 主權개념을 갖는 근세를 창건하려는 우리들의 역사적인 實의 의지가 함께 거기 있었다. 이같은 實의 의지에 바로 저 主體의 正統性을 강조하는 性理學이 歷史的으로 受容活用되었던 것은 말할것도 없다. 그렇기에 朝鮮朝 道學의 實에는 이 민족사의 총량을 확대시킬 수

5) “孰尸其機嗚呼太極”, 「栗谷全書」, 卷一, 理一分殊賦.

있는 內面的인 主體實力을 거기에 이미 가지고 있었다.

이같은 鮮初의 實이 朝鮮朝의 道學으로 정착되는 것은 16世紀의 역사상황이었다. 그것은 그대로 건국후 약 200년의 시간에 해당한다. 여기서 朝鮮朝의 건국이라는 政治的 法統과 道學의 定立이라는 文化的 道統 사이에 있었던 2世紀의 시간지체(time lag)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그 道學의 道統性에는 건국후 200년 동안에 쌓인 舊習과 未弊를 청산, 초극하려는 혁신의 생명을 담고 있었다.

이것은 그대로 건국이후 쌓여온 政治的 諸挑戰을 그 國家的 法統性만이 아니고 이제 그 200년 뒤에서 文化的 道統의 활력이 함께 담당, 해결하고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문화의 괄목할 확대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여기에 바로 革新앞에서 200년의 시간을 그렇게나 강조했던 栗谷의 진면목이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革新의 意志가 역사앞에 피어 오를때 무서운 反革新의 도전을 받았다. 그것이 革新을 위하여는 목숨까지 바쳐야 했던 당시 저 士禍와 같은 충격이었다. 그렇기에 道學의 革新에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根本的 正義라는 가치가 필요하였다. 이때 正義는 목숨을 바치며 지켜야할 궁극적인 正義요, 같은 역사안에서 反革新勳舊까지도 그 안에 함께 담아야할 실로 생명있는 包括的 正義여야 했다.

이처럼 궁극적이고도 포괄적인 正義개념이 바로 朝鮮朝 道學의 精粹인 저 公개념으로 정립되어 나왔다. 여기서 公論은 곧 國是로 제시되어 국가기본질서의 理念的 核을 이루었다.

이처럼 道學이 바탕이된 朝鮮朝 士林政治에는 道統을 비롯하여 크게 3가지 政治文化的 理念型을 거기 포괄하고 있었다. 흔히 三統으로 불리는 그것은 父統, 君統, 그리고 師統이었다.

이때 父統은 體로서 전해지기에 體統이요(以體傳之), 君(國)統은 法으로 전해지기에 法統이며(以法傳之), 師統은 道로써 전해지기에 바로 道統이었다(以道傳之).

여기서 體統은 道學의 정치문화에 담긴 길은 윤리성이요 法統은 바

로 그 정치성이며 道統은 그대로 그 문화성에 해당한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정치문화의 풍부한 총량을 말해준다. 이 三統이 확립되어 있을 때 國破君亡하여 法統이 무너져도 道統을 통하여 우리의 歷史主體를 회복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강조하는 오늘의 우리들 正統性 등에는 이 풍부한 三統의 정신문화를 모두 그 안에 큰 전통으로 담아야 할 것이다.

道學이 바탕이 된 士林 政治文化의 역사성은 너무도 의미깊게 오늘의 한국 정치문화의 현장에서 만나고 있다.

혁신앞에 200년의 시간을 강조한 栗谷으로 볼 때 그 逝去 400년은 우선 그 동안 이미 역사적으로 2번의 혁신을 청산하고 새로운 그 제 3의 혁신을 출발시켜야 할 歷史的 時間帶로 확인되고 있다.

駙馬國克服이라는 鮮初의 혁명성은, 그 보다 더 심각한 역사 그 자체의 단절인 日帝植民史의 극복이라는 오늘의 革命性으로 되살아 난다. 여기서 鮮初 士林의 實보다도 '더욱 깊은 우리들 實의 생명이 오늘날의 정치문화에는 필요한 것이다.

200년 적체된 舊習을 타파하기 위하여 강조되었던 당시 革新의 생명은 광복후 40년이나 누적되어 온 분단의 舊習을 타파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로써 더욱 요구되고 있고 性理學이라는 같은 價値體系 속에서 士禍의 충격을 극복키 위하여 강조되었던 그 포괄적 가치로서의 저 공개념은 5천년 民族史 최초의 分斷民族史를 초극키 위하여 보다 生命있는 공개념으로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IV. 結 語

十萬養兵說이 실천되지 않고 壬亂의 시련을 받았을때 그것은 우리의 太極의 實이 문화적으로 입은 道學의 受難이었고, 日帝 40년의 고통은 바로 우리의 太極의 實이 국가적으로 입은 國是的 受難이었으며, 다시 우리 韓民族자체가 갈라져 있는 오늘의 이 분단이란 비극은 그

대로 우리의 太極의 實이 민족적으로 입고 있는 歷史主體 그 자체의 수난인 것이다.

하지만 太極은 본래 그 자체가 회복의 논리요 有無超越의 實體다. 사실 栗谷의 十萬養兵은 당시는 受難을 당하였어도 그 數百年 뒤에 韓末義兵으로 回復되었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지금 이 太極의 實이 切實히 요청되고 있다.

歷史上 이 太極의 實은 危機狀況에서 마다 韓民族의 主體性이란 형식으로 끝없이 피어 나왔다.

그 實은 壬亂의 위기 앞에서는 이미 그 이전에 十萬養兵說 같은 義兵의 主體性으로 터져 나왔고, 淸에게 유린당한 17~8세기에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實事求是의 主體性으로 피어났으며, 다시 그것은 亡國의 日帝悲劇 속에서는 光復의 한 생명으로서 저 實學이라는 이름으로까지 다시 솟아올랐다. 여기서 우리는 主體자체가 분단당해 있는 오늘의 이 근본적인 主體性의 危機를 초극기 위하여 우리의 太極의 實은 보다 근본적이고도 包括的인 새 實學으로 재창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太極이요 새 歷史위의 實學이다.